

2021 커피콘서트 X
홍경민 <스페셜 스테이지>



- 공연일시 : 2021년 12월 8일(수) 14:00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 1만2천원 (커피 미제공으로 인한 3천원 할인가)
- 예매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일 년에 단 한 번, 커피콘서트 스페셜 스테이지

한국의 '리키 마틴'으로 불리는 가수 홍경민이 2021년 커피콘서트 마지막 무대를 뜨겁게 달굽니다.

1997년 데뷔 이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해온 홍경민은 각종 방송 활동 외에도 정기적으로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호흡해 왔습니다.

대공연장으로 무대를 옮긴 12월 커피콘서트에서는 '흔들린 우정', '널 보내며' 등의 히트곡과 함께 7080세대를 위한 추억의 가요 커버 곡들을 선보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에 맞춰 펼쳐지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훈훈한 연말연시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9회 정기연주회
<뉴 골든 에이지Ⅳ. 베토벤 합창>

-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19:30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 예매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연말에는 역시 베토벤 "합창"

연말에 가장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음악으로 손꼽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뉴 골든 에이지 4번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납니다.

베토벤 "합창"은 1824년에 완성된 그의 최후의 교향곡으로 당시 교향곡에서 볼 수 없었던 합창을 등장시킨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낭만주의 교향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가 남긴 최고의 걸작으로 불립니다.

막강한 성악라인이 협연진으로 나섭니다. 베르디 국제 콩쿠르 입상에 빛나는 소프라노 홍주영,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 입상 및 슈리브포트 오페라단 올해의 성악가상을 수상한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테너 박승주와 독일 ARD 성악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수상 후 연세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인 바리톤 양준모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인천의 자랑인 인천시립합창단과 맑고 깨끗한 사운드와 유럽 합창의 특징인 깊은 울림이 접목된 소리를 가진 원주시립합창단이 합창을 맡아 귀를 황홀하게 합니다.

인류애적 메시지를 담은 '환희의 송가'로 저물어가는 2021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얼리 윈터페스티벌



문태국&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2021년 12월 8일(수) 19:30	전석 5만원
피아니스트 안인모 - 클래식이 알고 싶다	2021년 12월 11일(토) 17:00	전석 1만원
양상블 오푸스 - 피아노 트리오의 음악세계	2021년 12월 12일(일) 17:00	전석 1만원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예매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초 겨울, 클래식 축제가 시작된다!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을 맞이하여 시린 마음을 채워 줄 '청소년을 위한 공연 축제-얼리 윈터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다양한 공연 장르로 구성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올해는 클래식 실내악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두 남자,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첼리스트 문태국이 8일 저녁,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로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합니다. 11일에는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클래식해설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안인모가 '낭만살롱'을 주제로 낭만시대의 작곡가들의 연주와 해설을 들려주며 신선한 감동을 전합니다.

12일에 펼쳐지는 <양상블 오푸스 - 피아노 트리오의 음악세계>는 각 악기의 특색이 살아 있는 피아노 트리오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얼리 윈터페스티벌>로 초겨울 한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립무용단 토요일춤 : 춤 담은 자리 <근·현대 한국무용의 아버지 송범>

○ 일 시 : 2021년 12월 18일(토) 17:00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 1만원
○ 예매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가

직계 제자가 선별한 거장의 대표 춤 - 한국 근·현대 무용의 아버지 송범

우리 춤의 참 멋을 극장에 담아낸 인천시립무용단의 상설 기획공연 <토요일춤·담 : 춤 담은 자리>. 엄선된 우리 춤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춤의 깊은(潭) 매력을 전하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談)를 나누는 <춤·담>은 춤에 대한 애정을 담백 담아낸 공연입니다.

이번 <춤·담>의 이야기 주제는 '거장의 구월동 나들이'로, 무용극의 창시자 '송범'의 작품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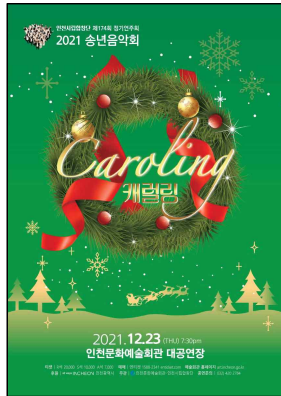
전통 춤을 무대예술로 격상시킨 선구자이자 무용극 형식을 정립한 안무가, 한국 근·현대 무용의 역사 그 자체라 일컬어지는 무용가 송범은 초대 국립무용단장으로 약 30년 간 재임하며 한국무용의 공연사를 수놓았습니다.

이번 무대는 송범의 직계 제자인 인천시립무용단의 윤성주 예술감독이 직접 선별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송범 춤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해박한 지식과 유쾌한 입담이 돋보이는 해설로 위대한 거장의 구월동 나들이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립합창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Adieu 2021 캐럴링>



- 공연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19:30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7천원
- 예매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세상, 크리스마스 캐럴로 밝힌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과 함께 저물어가는 12월, 인천시립합창단이 따뜻한 합창으로 세상을 환히 밝힙니다.

평화가 그리워진 시대를 맞이하여 20세기 초 크리스마스 명곡들, 팝 스타일로 편곡한 캐럴과 함께 즐거운 무대로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1부는 20세기 초의 프랑스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 작품들을 노래합니다. 프랑시스 풀랑의 “네 곡의 크리스마스 모테트”, 에드워드 엘가의 “A Christmas Greeting” 등의 곡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서정적이면서도 힘 있게 그려냅니다.

2부에서는 팝과 가스펠 등 다양한 스타일로 편곡된 캐럴들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상임작곡가 조혜영이 편곡한 “온 땅에 평화가 있으라”를 노래하며 길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